

## 교회의 회복

(목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밝혀 줌

성경: 엡 3:3-5, 8-11, 롬 8:28, 16:25

#### I. 교회의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아야 한다 — 엡 1:9, 11, 3:9-11, 롬 8:28.

- A. 목적이란 무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결정한 의도이다.
  - 1.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다 — 엡 1:5.
  - 2.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얻으시려고 그분께서 결정하신 의도이다 — 엡 1:9, 11.
- B. 영원한 목적(직역하면, '시대들의 목적')은 영원 과거에 영원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 — 엡 3:11.
  - 1. 시대들의 목적은 영원에 속한 목적, 곧 영원한 목적이다.
  - 2. 창세전, 곧 하늘들과 땅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미래, 곧 다가올 영원에 있을 무언가를 위한 목적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에 속한 목적, 곧 영원한 목적이라고 불린다 — 엡 1:4-5, 9, 11, 3:11.
- C.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목적'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1.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 2.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린, 목적이 있는 결정을 가리킨다.
  - 3.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 자신과 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건축된다 — 엡 1:22-23, 4:16.
- D.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은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임을 계시해 준다.
  - 1.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 — 엡 1:4-5, 9, 11, 22-23.
  - 2. 영원 과거 안에서, 다가올 영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얻으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다 — 엡 3:10-11.
    - a. 교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영원한 문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과 주제이다.
    - b.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교회를 가지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다가올 영원 안에서 교회를 가지시기를 기대하신다.

- c.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 동안 내내 존재하지만, 영원 과거로부터 비롯되었고 영원 미래를 위해 있다 — 마 16:18, 18:17, 계 21:2, 9-11.
- E. 하나님은 교회를 갖기를 계획하셨는데, 이 교회는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 곧 단체적인 한 몸으로 함께 조율되고 건축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 엡 1:22-23, 2:21-22, 3:14-21.
  - 1. 하나님은 이 단체적인 몸이 단체적인 한 그릇, 곧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실 그릇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 엡 3:14-17.
  - 2.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결정된 의도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소유와 연합하실 수 있는 단체적인 한 그릇인 단체적인 몸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 그릇이 바로 교회이다 — 엡 4:4-6, 16.
  - 3.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큰 기쁨이자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며 소중하다 — 엡 1:5, 9, 22-23.
- F. 우주의 존재는 교회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 계 4:11, 엡 3:9-11.
  - 1. 성경의 완전한 계시는 우주 안의 만물이 교회를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준다 — 엡 3:9.
  - 2. 신격의 세 위격조차도 교회를 얻고자 하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신다. 신격의 세 위격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 엡 1:3-23, 마 28:19, 16:18, 고후 13:14, 1:1.
  - 3.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려면, 하늘들과 땅과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교회를 얻으실 수 없다 — 슥 12:1, 계 4:11.
- G.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세 방면이 있는데, 바로 아들의 자격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엡 1:5)과 그분의 각종 지혜를 원수에게 알게 하시는 것(3:10)과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이다(1:10).

**II.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 엡 3:9.**

- A.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역대로 신약 시대 이전까지는 교회가 하나의 비밀이었다 — 엡 3:3-6, 9, 5:32.
- B. 성경에서 비밀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비밀들에 관한 원칙이다 — 막 4:11, 롬 16:25-26, 골 1:26-27, 2:2, 4:3, 엡 1:9, 3:3-4, 9, 5:32, 6:19.
- C.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인데, 이 목적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다 — 엡 3:9.
- D.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누구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 계 4:11, 엡 3:9, 골 1:16.
  - 1.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한 읍은 옳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은 시대들의 비밀이었다 — 읍 10:13, 엡 3:9.
  - 2.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 시대에 걸쳐 그분의 의도를 감추어 두셨다 — 창 1:26, 롬 16:25.

3. 신약 시대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다. 비밀, 곧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알려졌다 — 엡 3:3-5.
- E.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엡 1:10, 3:9, 딤후 1:4).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셔서(롬 8:29, 요일 3:2) 한 유기체, 곧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엡 2:15-16). 이것은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이며(엡 1:22-23, 3:19)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계 21:2-22:5).
- F.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G.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교회를 갖는 것이다 — 엡 3:9-10.
- H. 바울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 엡 3:8-9.
1.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 엡 3:10-11, 21.
  2.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 비춤을 주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 엡 1:5, 9, 11, 3:8-11.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영원 안에서 목적하신 교회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나온 어떤 것이다. 그것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계획되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실 것을 목적하셨다.

성경에서 이 '목적'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그분께서 영원 안에서 세우신 것이다. 그분은 목적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그분은 단체적인 한 몸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한 무리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를 얻기를 계획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이 몸과 연합시키시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체적인 몸을 하나의 단체적인 그릇으로 삼아 그 안에 그분 자신을 넣으시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온 존재를 연합시키실 수 있는 단체적인 한 몸, 곧 단체적인 한 그릇을 갖고자 계획하셨다. 이 그릇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다. 왜 교회가 하나님께 것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럽

고 보배로운가?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목적하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교회를 갖고자 계획하셨다.

###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임

성경의 완전한 계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신격의 세 위격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를 교회를 갖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신격의 세 위격,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에 대해 익숙하다. 이 신격의 세 위격은 우리에게 삼일성의 교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신다. 이 세 위격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기 위해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거의 없으므로 모습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러나 목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이다. 만일 아침 일찍 그의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아버지와 남편임을 볼 것이다. 아침 식사 후에 그는 교수로서 대학에 갈 것이고, 오후에 여러분은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대학에서는 교수이며, 병원에서는 의사이다. 이 사람은 왜 이러한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큰 목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격에 세 위격이 있다고 해서 분리된 세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라고 말한다. 여기에 세 위격이 있지만 오직 ‘한 이름’뿐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the names)’이 아니라 ‘이름(the name)’이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이고 대학에서는 교수이며 병원에서는 의사인 것도 한 이름을 가진 세 인격이다.

전기를 생각해 보자. 발전소 안에 저장되어 있는 똑같은 전기가 많은 건물 안에도 설비되어 있다. 어떻게 발전소 안에 있는 전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들 안에 설비될 수 있는가? 그것은 전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류가 전기 그 자체와 다른가? 그렇지 않다. 전류는 단순히 전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전기를 전등이나 난방기나 냉방기 혹은 여러 다른 전기 제품에 사용할 때에도 전기는 여전히 전기이지만 이것은 발전소에 저장되었던 전기, 전류를 통해 건물 안으로 전달된 전기,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에 적용된 전기라는 세 단계를 거쳐 나온 것이다. 이것들은 세 가지 종류의 전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세 단계 안의 한 전기일 뿐이다. 이 단계들의 목적은 전기를 분배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왜 세 위격 안에 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전기의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전류이시며, 영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전기의 적용이시며 기능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적용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산출되고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산출과 존재를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세 위격으로 계시야 한다. 신격의 분배하심은 삼일성에 대한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존재하려면 하늘들과 땅과 우주 공간과 수많은 다른 항목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그분 자신을 표현할 교회를 가지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수십억의 창조물을 창조하셨는가?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있고 교회 때문에 존재한다.

또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 곧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다만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과 혼과 영을 지닌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필요하다. 왜 사람에게 세 부분이 있어야 하는가? 사람의 몸은 창조물과 관련된다. 사람의 혼은 사람 자신과 관련되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다. 따라서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토록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창조물이 없다면, 또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창조물, 사람은 모두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관련해 위대하고 의미심장한 많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한다. 이 비밀은 창조 이래 대대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비밀에 관해 매우 분명하셨다.

모든 피조물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왔다. 만일 여러분이 호랑이나 사자에게 왜 여기에 있는지 물으면 그것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이 대학교수들에게 생명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그들 모두가 단지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세 위격 안에 계시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왜 하늘들과 땅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항목으로 이루어진 창조물이 필요한지, 왜 인류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므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전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났다. 이것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알려졌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지혜를 이 모든 천사 권세자들에게 전시해 보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 지혜는 개인들이 아닌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모두 반드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원수에게는 수치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되고 원수에게는 일종의 자랑거리가 된다.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속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천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다.

### 은사 있는 사람들과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은사 있는 모든 사람, 곧 사도, 신언자, 복음 전하는 이, 목자 및 교사가 교회를 위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 일꾼들, 사역자들, 교사들이 교회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좌절시키고 파괴하며 손상하기까지 한다. 은사 있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회를 위한 사도여야 하고, 교회를 위한 신언자여야 하며, 교회를 위한 복음 전하는 이여야 하고, 반드시 교회를 위한 교사 및 목자여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부담을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갖기를 계획하셨고 갈망하시는 것이다.

## 시작과 끝

신약에는 교회에 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두 구절이 있다. 하나는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 있고, 다른 하나는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신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다. 이 구절과 그 문맥(16-17, 19절)에서 우리는 서로 연관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왕국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계시되실 때는 언제나 교회가 즉시 나타나야 한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앞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으로써 산출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 이어서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교회에 이어서 왕국이 언급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산출하시고,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 온다.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산출되고,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와 권위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교회가 열쇠이다.

주님은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다. 그분은 신약의 ‘첫 번째’ 책에서 교회에 대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의 최종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에서 교회에 대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은 개인들에게 쓰인 책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인 책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계 1:8)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어라.”(11절)

요한계시록은 개개인의 믿는 이에게 쓰인 책이 아니므로, 만일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 밖에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받을 만한 위치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 개개인의 믿는 이를 불러 이것을 듣게 하셨더라도 이 책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였다. 우리는 반드시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을 받을 수 있고 주 영(Lord Spirit)께서 그분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된다.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시작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신약의 첫 번째 책에서 교회의 건축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신께서 시작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은 교회의 건축을 성취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다.

시작에서 그분은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분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이 우주적인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다. 주님은 교회로 시작하시고, 교회들로 끝맺으신다. 교회는 우주적이고, 교회들은 지방적이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우주적인 교회보다 우리에게 더 실질적이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우주적인 교회의 성취이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영원한 계획에 따라 교회를 보아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8년, 1권, 교회의 실질적 표현, 509-516쪽*)